DAY 22 · 3부 뭘 할 수 있나

'고양이와 개가 내린다'는 왜 오역일까 — 번역

하루 5분 AI 수업 · 2026년 9월 28일

낱말을 바꾸면 문장이 되고, 뜻을 옮기면 말이 통해.

한 줄로 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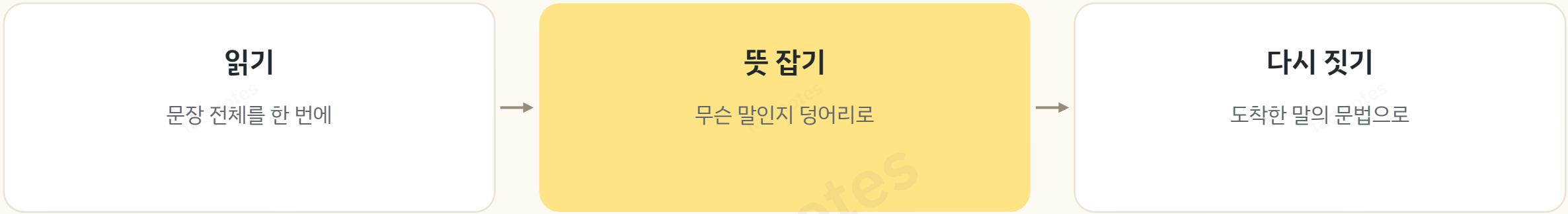
1. 번역은 단어를 하나씩 맞바꾸는 일이 아니야. **문장 전체의 뜻을 먼저 잡고, 그 뜻을 다른 말로 다시 짓는 일**이거든.

2. 옛날 번역기는 단어와 짧은 토막을 사전처럼 갈아 끼웠어. 지금 AI는 어제 배운 요약처럼 **문장 속 단어들이 서로를 쳐다보게 해서 뜻부터 잡아**.

3. 2016년에 구글이 이 방식을 실제 번역 서비스에 처음 넣었어(중국어에서 영어로가 먼저였지). **어색한 직역이 확 줄어든 게 그때부터**야.

그림 한 장으로

뜻을 옮기는 번역의 세 걸음



가운데 칸을 거치기 때문에 낱말이 전부 바뀌어도, 심지어 없던 낱말을 넣어도 맞는 번역이 돼.

핵심: 번역의 단위는 낱말이 아니라 뜻이다

실험 · 전후 비교

단어를 바꿔치기한 번역 vs 뜻을 옮긴 번역

It's raining...

전

낱말을 순서대로 갈아 끼우면 '고양이와 개가 비처럼 내린다'가 돼. 문법은 멀쩡한데 뜻이 통하지 않아.

후

문장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가 나와. 낱말은 하나도 안 남았지만 뜻은 그대로야.

뜻을 옮기면 낱말이 사라져도 맞는 번역이 된다. 번역의 단위는 낱말이 아니라 뜻이야.

밥 먹었어?

전

우리말은 '너'를 자주 생략해. 낱말만 옮기면 'Rice eat?' 같은 토막이 나와서 문장이 되지 않아.

후

문장 전체를 보고 '생략된 주어는 너구나'를 판단해서 'Did you eat?'을 만들어. 없던 낱말을 새...

빠진 것을 채우려면 문장 전체가 무슨 상황인지를 봐야 해. 그래서 앞뒤를 같이 읽는 게...

He sat by the...

전

bank를 사전 첫 뜻으로 고르면 '그는 은행 옆에 앉았다'가 돼. 앞 문장이 낚시 이야기였어도 그대로야.

후

앞에 '그는 낚싯대를 챙겼다'가 있으면 '강둑 옆에 앉았다'로 옮겨. 같은 낱말인데 답이 달라진 거야.

앞뒤 문장이 증거가 된다. 그래서 긴 글을 통째로 넣어 번역하면 결과가 더 좋아져.

같은 문장을 두 방식으로 번역해 봤어. 「전」 과 「후」 를 번갈아 누르면 어디서 무너지는지 보여.

웹 수업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어요 · next-token.net/learn/day-22/

확인해보기

세 문제만 풀어 보자

Q1 'It's raining cats and dogs'를 낱말별로 바꾸면 왜 틀릴까?

① 낱말 수가 달라서
② 문법이 어려워서
③ 관용구는 통째로 하나의 뜻이라서
④ 고양이가 영어라서

Q2 '밥 먹었어?'를 영어로 옮길 때 AI가 하는 일은?

① 낱말을 그대로 옮긴다
② 한글 발음을 적어 준다
③ 문장을 짧게 자른다
④ 생략된 주어 you를 판단해서 채운다

Q3 긴 글을 통째로 넣어 번역하면 왜 더 나을까?

① 앞뒤 문장이 증거가 돼서
② 글자 수가 많아서
③ 번역이 더 빨라져서
④ 맞춤법이 고쳐져서

왜 그런지까지 알고 가자

Q1

③

관용구는 낱말의 합이 아니라 덩어리 하나가 뜻을 가진다. 그래서 낱말을 아무리 정확히 바꿔도 뜻이 통하지 않아.

Q2

④

우리말은 주어를 자주 생략해. 원문에 없는 낱말을 채우려면 문장 전체가 무슨 상황인지 봐야 하고, 바꿔치기로는 못 하는 일이야.

Q3

①

bank처럼 뜻이 여러 개인 낱말은 앞뒤 문장을 봐야 고를 수 있다. 문장 하나만 던지면 AI도 늘 같은 답을 내게 돼.

낱말을 바꾸면 문장이 되고,
뜻을 옮기면 말이 통해.



내일은 글쓰기 도우미 — 숙제 글쓰기에서 어디까지 맡기고 어디부터 내가 할까.